

파리는 지금,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과 개회식의 주요 행사가 열릴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가 불을 밝힌 채 전 세계에서 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은 오는 26일 오후(현지시간)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센강과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을 시작한다. 크로스 필터를 사용해 촬영한 에펠탑 일대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 정상필 통신원

지난 24일(현지시간), 이틀 후면 세 번째(1900년·1924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비슷한 광경들이 연출됐다. <관련기사 3·18면>

리블리가(街)나 생제르맹대로 등 파리를 가르는 센강을 중심으로 양안에 위치한 주요 도로들은 죄다 막혀 있고, 바리케이드 앞에 선 경찰들과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바리케이드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경찰의 제지를 수긍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화를 내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갈 길이 막혔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동원된 경찰 중에는 지역에서 차출된 인원이 많아서인지 파리 지리를 전혀 모르는 듯 제대로 된 우회경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이 어렵사리 올림픽을 따낸 게 아닌 경우라면, 즉 올림픽이 열리는 선진국의 시민은 대회 유치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최근의 추세다. 100년 만에 지구촌 축제를 준비한 파리로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7년 파리가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시내 도로 곳곳에 자리잡았던 공사장들은 불편하긴 해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한 자전거도로여서 간인목으로 이해해줄 수도 있었다. 그 탓에 탁한 센강에서 수영 종목 경기를 열겠다면서 대선 주자급 여성 시장이 수영복을 입고 직접 강에 뛰어들어 장면은 시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쩌면 예견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개최도시의 흔한

100년 만에 열리는 지구촌 축제 에펠탑 앞에서 비치발리볼·유도 스텐강에서는 수영 경기 열려 일부 시민 불만 속 화려한 개막식

풍경은 경기장 건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들은 새 경기장 건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로 짓는 것은 국제경기 규모의 수영장과 배드민턴이 열리는 8000석 규모의 경기장 두 곳이 전부다. 시내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또는 인근 공원부지를 활용해 임시 경기장을 만들고, 대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철거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게다가 임시경기장 건축에 사용된 자재들은 100% 재활용을 한다고 한다.

서울이라면, 경복궁 마당에서 비치발리볼 경기를 하고, 시청 광장에 길거리 농구 경기장을 설치하는 식이다. 계획이 이러하니 시민들과 관광객의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짐작해 보건대 이쯤 되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경기장이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다.

파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에펠탑 바로 앞에도 경기장이 들어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광버스가 오가고 시민들이 조깅을 즐기던 이곳에 관중 1만2000명이 들어가는 그럴 듯한 비치발리볼 임시 경기장이 뚝딱 생겼다. 해당 장소는 굵직한 콘서트가 열리거나 매년 국경일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파리지앵들을 끌어들이던 곳이다. 에펠탑과 군사학교 사이에 놓인 잔디 광장인 샹드마르스에도 임시 경기장이 들어서 유도와 레슬링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파리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열렸던 1900년 파리에서는 또 다른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만국박람회다. 당시 처음으로 선보인 대형전시장

그랑 팔레는 지금까지도 파리지역의 최애 전시공간이다. 종종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형전시회나 사넬 패션쇼가 열리는 이곳에서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열린다. 그랑 팔레에서 나와 센강을 향하면 역시 1900년에 설치돼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로 꼽히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 역시 경기장으로 사용된다. 수영 마라톤과 철인3종 경기 등을 위한 관람석이 이미 다리 위에 설치됐다. 기어이 센강에서 수영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알렉상드르 3세 다리를 지나면 나오는 앙발리드 잔디 광장은 도로사이클과 양궁, 마라톤 등이 열리게 된다. 앙발리드는 17세기 중후반 상이용사를 위한 병원 및 요양원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은 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앙발리드 내의 황금빛 돔으로 유명한 생루이 성당에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

샹젤리제 거리의 끝에 있는 콩코드 광장 역시 거대한 경기장 또는 놀이터로 변했다. 여기서는 스케이트보드와 3대3 길거리 농구 등의 경기가 열리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콩코드 광장은 국경일에 열리는 열병식을 하는 곳인데 이번에는 패럴림픽의 개막식 장소로 선정됐다. 열병식 때와 비슷하게 샹젤리제 양쪽에 스탠드를 설치해 6만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뒤로 하고 필력이는 오펜기 깃발 아래 파리가 술렁이고 있다. 이제 곧 도시 이곳저곳이 눈물과 환호로 뒤덮일 것이다. 센강변을 느릿하게 걷는 도시 산책자의 낭만은 잠시 접어둬야 할 듯하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파리는 도시 전체를 경기장에서 사용한 멋진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스타디움이 아닌 곳에서 개막식을 여는 첫 대회도 바로 파리이다. 천년 수도 파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센강에서 열리는 개막식이 기대되는 이유다.

/sphiljeong@gmail.com

‘세수 핑크’ 속 3년째 감세...재정기반 취약 우려

정부, 상속세 4조 감세...부자감세론 ‘거대 야당 벽’ 험지 않을 듯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 내수 진작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감세 조치를 내놨다. <관련기사 8면>

상속·증여세 세율을 조정하고 공제를 확대하는 등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상속·증여세 체계의 합리화도 시도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세수 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3년째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기업상속공제 확대 등 상당수 감세안이 대기업·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 탓에 부자 감세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세법심사 과정에서 거야(巨野)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은 정부에게 쉽지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상속·증여세·과세표준 완화, 국가전략 기술 관련 세액공제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경제의 역동성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상속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휴가철 피해 속출 ▶6면

복스-‘조선후기 진경산수화’ ‘한편의 순간’ ▶14·15면

여행 성지 전남, 지역축제 지구촌과 동행 ▶22면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1명당 10만원씩 상향하는 등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도 내놨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은 상속·증여세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약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체계도 정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은 ‘부자 감세’ 논란도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예측 실패다. 경기 변동성이 커질수록 경기 전망은 험지 않고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